高 神 大 學
論 文 集 第 12 輯
1984. pp. 113~132

예배에 관한 성경적 고찰과 실제

金 炳 元*

목 차

Ⅰ. 서언
Ⅱ. 성경에서의 예배
A. 구약에서의 예배
1. 족장시대의 예배
2. 율법시대의 예배
3. 포로이후 시대의 예배
B. 신약에서의 예배
1. 예수시대의 예배
2. 사도시대의 예배
Ⅲ. 준비
A. 예배를 위한 일반적인 준비
1. 교회당 및 위치 선정
2. 실내외의 색
3. 광선
4. 음향조절
B. 예배를 위한 특별준비
1. 예배실의 준비
2. 교인들의 준비
3. 목사의 준비
4. 장로의 준비
5. 성가대의 준비
6. 안내위원
7. 유아 관리 문제
Ⅳ. 공예배의 성질
A. 예배시간을 지키라
B. 일관성 있게 진행하라
C. 교인들의 유익을 도모하라
D. 기계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라
E. 경건하고 품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F. 활기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
G. 교인들이 예배순서에 동참하도록 하라
Ⅴ. 결론

*助教授

I. 序 言

예배(Worship)란 신의 위엄 앞에 영광과 가치를 돌린다는 말로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과 가치를 돌리는 것을 뜻한다. 영어의 Worship은 Worth(가치)와 Ship(신분)의 결합어인데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라는 뜻이다.

예배학(Liturgiology)이란 예배에 대한 전부를 역사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말한다. 이 "예배학"이 처음 나타나기는 1863년 제이 엠 닐레(J. M. Neale)의 "예배학과 교회사에 대한 엣세이(Essay on Liturgiology and Church History)"라는 책에 쓰여지기 시작한 때 부터이다.[1] 예배학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니 즉, 세례, 죄의고백, 신앙고백, 설교, 기도, 성찬식 등을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원리를 세우는 학문이다.

예배학의 어근(語根)을 조사해 보면 Liturgy(예배)는 헬라어의 λειτουργία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은 "백성"의 뜻을 가진 λεώs와 "일"이란 뜻을 가진 ἔργον의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λειτουργία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의미하지만 또 이것은 개인적이고 정치적이고 교회적인 예배 전체를 포함한다. 七十인경(LXX)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의미와 정치적 국가적 성격을 나타내는 עֲבֹדָה를 λειτουργία로 번역하였다[2] 신약성경에서 이 말은 눅 1:23에 사가랴의 제사장직 직무(예배)를 가르킬 때 썼고 빌 2:17에는 사도 바울의 헌신과 봉사, 히 3:6의 중보자(仲保者;mediator)로서의 직무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물질적 원조(고후 9:12, 빌 2:30)나 위정자(롬 13:6)를 언급할 때 쓰기도 했다. 이 말은 신약에 있어서 공예배에 사용된 말이다. 우리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의, 권능성, 전지성, 창조와 섭리 등을 말하고 찬미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가치와 신분을 선포하는 것이다. 고전 10:31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려는 생활 그 자체가 바로 예배하는 생활이다. 참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예배의 생활이며, 자기 본위의 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요 4:23~24)에서 하신 말씀의 내용은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드려야 되겠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오늘날 어떤 교인들은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보다, 무엇을 얻겠다는 욕망이 더 강한 것 같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처사이지 참 예배는 아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장로교 요리문답 제 1 문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예배의 대상과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사람을 본위로 한 인본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본위로 한 신본주의 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순서를 작성하는데도 사람을 의식하고 흥미 위주로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예배의 근거는 무엇보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메천(J. G. Machen) 박사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존하며 따라서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예비지식이 있어야 한다.[3] 하나님은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인간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권위와 최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예배는 무한 하시고 인격적인 여호와 앞에(Coram Deo) 서는 것으로 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 말은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God-Centered)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주의의 대가인 카이퍼(R. B. Kuiper)는 집단예배의 본질(The Essence of Corporate Worship)로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더불어(with God)", "하나님의(of God)", "하나님에게(unto God)"라고 말하였다.[4] 그러므로 예배가 참다운 예배가 되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1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근본 의미가 헌신적인 제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예배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오스카 쿨만(Oscar Cullmann)은 예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을 두번 기록한 것은 갓난아기 교회의 예배 구조를 묘사해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리스도교 예배의식과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그 근거와 정당성을 보여준다. 공관복음은 사도시대의 전통적인 예배의 규범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5] 이러한 견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위에 오셔서 행하신 역사적 선교와 그의 봉사생활과 그 몸을 번제물로 드린 사실이 예배의 과정을 가지며 사실에 있어서 바른 예배(The Liturgy)요, 예배의 생활이다.

지글러(Segler)는 기독교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독교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의 인격적인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믿음 안에서의 응답이다 하나님은 성육신(成肉身)으로 인간에게 오셨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인격의 경험에서 너와 나(Thou-I)의 관계로 인간을 직면 하신다. 인간의 예배경험에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다. 예배는 느낌 이상의 일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6]

그리스도의 생애 그 자체가 예배적이다. 그리스도는 예배의 대상이요 본질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Christ-event) 그 자체가 예배의 신학적 주제가 되어야 한다. 구약의 예배의 피 제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질 예표이다. 헬만 바빙크(Herman Bavinck)

1) F. L. Cross, ed.,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 830.
2)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0, p. 146.
3) J. Gresham Machen,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Eerdmans Pub. Co., 1974, p. 54.
4) R. B. Kuiper, *The Glorious Body of Christ,* Grand Rapids:Eerdmans Pub. Co., 1967, pp. 346~352.
5) 백동섭, **새목회학**, 서울 : 성광문화사, 1981, p. 147.
6) Franklin M. Segler, **목회학개론**, 이정희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77, pp. 225~226.

는 말하기를 구약 구속사역(救贖事役)의 의미가 바로 밝혀지고 그가 참 하나님(Vere Deos) 이요 참 사람(Vere Homo)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사실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질 때 예배신학의 정립이 이루어 진다.[7] 예배의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이며 복종이다. 참된 예배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께 상달하며 기뻐받으실 예배를 드리도록 준비해야 한다. 베인호프(J. Veenhof)는 성령론을 교의학에 소속된 별개 과목으로 보려고하기 보다는 신학의 중심과제로 다루어야 할 과목으로 알았다.[8] 더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같은 상황에서 본다면 예배신학과 성령론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없는 줄 안다. 바른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른 성령론의 정립이 필요하다. 성령론이 바로 정립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신비주의나 감상주의 혹은 샤마니즘적인 것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다. 파머(H. H. Farmer)는 순수한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식, 교회당의 화려함, 장식들의 빛이나 조명의 효과, 설교자의 매력적인 설교재능과는 상관이 없다. 이러한 심리적인 보조물에 자극된 감정을 곧 성령의 감화나 감동으로 착각해서는 안된다."[9]

예배는 종교의 중심적인 사실이며 인간의 최고의 의무이다.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상의 절대적인 요소이므로 목회자는 예배에 대한 권위를 세우고 신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다. 19세기 미국 침례교 신학자였던 다르간(E. C. Dargan) 목사는

"교회와 그 사역(ministry)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연구가 불가피하다"[10] 고 하였고, 코너(W. T. Conner)는 "교회의 예배와 사업에 영감을 주고 지도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11] 라고 하였다.

Ⅱ. 성경에서의 예배

A. 구약에서의 예배

구약에서 예배에 사용되어진 단어가 둘이 있는데 첫째는 샤하(Shaha)인데 이는 "엎드린다", "경배한다", "따른다", "굴복한다"는 뜻인데 이는 종교적인 숭배, 순종, 봉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마음과 몸으로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이다. (출 4 : 31, 대하 17 : 3, 29 : 30, 욥 1 : 20, 느 8 : 3). 둘째는 아바즈(Abhadh)인데 이는 "섬긴다"[12] (사 19 : 21, 렘 44 : 3)는 뜻으로

7) 정성구, *op. cit.*, p. 158.
8) *Ibid.*
9) H. H. Farmer, *The Servant of the Word*, New York:Chrales Scribner's Sons, 1942, pp. 75ff.
10) 백동섭, *op. cit.*, p. 146.
11) W. T. Conner, *Christian Doctrine*, Nashville:Broadman Press, 1937, p. 116.
12) 구약성경에서 이 표현은 약120회 나타나 있다. Keil & Delitzsch에 의하면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Serve God)"는 표현의 예배는 *LXX*에는 λατρευειν τῳ θεῳ 로 번역되었고 Latin Vulgate에서는 immolare(희생)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Keil &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O. T.*, Vol. I. *The Pentateuch*, Grand Rapids:Eerdmans Pub. Co., 1951, p. 411.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주장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기는 존재임을 가르키는 말이다.

구약에서 예배의 근원을 찾는다면 역시 가인과 아벨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 하신지라."(창 4 : 3~5) 물론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행위(순종)를 예배로 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예배로 보기는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인과 아벨에 와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있었으므로 그들의 행위는 완전한 예배 행위인 것이다. 또한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서 하나 기억할 것은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 했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예배는 그 시초부터 합당한 것과 합당치 못한 것으로 분리 되어졌다고 하겠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 하였더라."(창 5 : 24)는 말씀에서 "동행 하더니"(Walked with)는 에녹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암시한다. 즉,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거닐었다는 말이나 이 말의 깊은 뜻은 "에녹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뿐 아니라 그의 창조자와 더불어 끊임없는 관계에서 살았음"[13]을 의미한다. 이로 볼때 구약에서의 예배는 가시적(可視的)으로 표현 되었으며 주로 성막이나 성전에서 거행 되었음을 알 수 있다.[14] 구약에서의 예배는 족장시대의 예배, 율법시대의 예배, 포로이후 시대의 예배로 대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시대별 예배 행위와 제도가 달랐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준다.

1. 족장시대의 예배

족장시대의 예배행위는 택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 : 19) 족장시대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상은 하나님의 선택사상인 것이다. 피택자가 택자에게 드리는 예배 행위는 약속을 믿는 신앙의 행위인 것이다. 또한 이 족장시대의 예배는 그 장소성에 있어서 특정된 곳이 아니라 자유로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마음의 제단을 어디든지 가지고 갔다고 존 칼빈(John Calvin)이 말했거니와 옛날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그 가족과 더불어 이동할 때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15] 이것은 족장시대에 있어서 예배의 장소성이 제한받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다. 인간을 창

13) Franklin M. Segler, **예배학원론**, 정진황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79, p. 31.
14) 신학교재 편찬위원회, **간추린 예배학**, 서울 : 세종문화사, 1978, p. 16.
15)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8, p. 11.

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신과의 교제를 위하여 사람을 요구하셨고 사람을 찾는데 솔선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그로 하여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과 그를 믿을 것과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자손을 창대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창 12 : 1~20) 여기에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창 12 : 7) 특히 "이스라엘의 족장들은 예언자(창 18 : 19) 제사장, 왕으로 불리웠는데 공적인 예배에 족장들이 사회를 했고 예배를 집행하는 일을 했다."[16] 그리고 가족과 더불어 예배를 드린 곳은 가정이었다. 그러므로 족장시대의 예배는 신앙과 더불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신앙은 예배를 통하여 표현 되기도 했는데 "이 예배는 이스라엘의 생활의 중심을 이루었고, 이스라엘을 신앙의 공동체로 결속시켜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17] 한편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웠다. 모리아 산상에서의 예배는 이삭으로 하여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하였으며, 이 결과로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 26 : 24~25) 여기에 반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던 도중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꿈을 꾸었다.

"두렵도다 이 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 28 : 16~17)하며 거기에 돌로 단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벧엘」이라 불렀다. 그러므로 족장시대의 예배는 예배의 장소성이 일정하지 않았고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귐이 있는 그러한 예배였다.

2. 율법시대의 예배

족장시대의 예배가 개인 제단과 가정 제단으로 드려졌다면 율법시대의 예배는 민족적이요 성전(Temple)을 중심한 예배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경험에서 모세는 그 유명한 십계명을 세상에 남길 수가 있었다.[18]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출 20 : 1~3) 신명기 5 : 6~7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 것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족장시대와 달리 율법시대에 와서 공적 예배의 특색은 첫째 성전 외의 다른 곳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금지 되었다는 것과, 둘째 예배의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지어져 있었다는 것, 셋째 예배는 대리적이요, 위탁적이었다는 것, 넷째 의식적이었다는 것, 다섯째 상징적, 모

16) *Ibid.*
17)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 기독교사상 제23권 2 집 (1979. 2), p. 46.
18) 김소영, 예배의 생활, 서울 : 신문인쇄사, 1980, p. 12.

형적이었다는 것이다.[19] 족장시대의 예배가 율법시대에 와서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성전을 시설하는 방법, 내용, 제사의 의복, 희생제물의 종류와 방법까지도 의식화 되었던 것이다. 당시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느냐 하는 신앙고백이었다. (신 26 : 5~9) 그러므로 구약의 예배는 "이스라엘 편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시대의 예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자연신의 예배와 충돌하였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예배를 요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시하여 예배를 위한 성소를 만들게 하고 십계명을 간수하게 하기 위하여 법궤를 만들도록 하였던 것이다. (출 25 : 26) 그러나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가 언제나 순결한 형태로 유지되지는 못하였다.[21] 백성중 어떤 사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버렸고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인기있는 신당의 제식과 예식을 여호와의 예배와 바꾸었다.[22] 예배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는 참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충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시대는 단명하고 말았던 것을 역사가 증명한다. 이러한 잘못된 원시적 사상이 오늘날도 어떤 교인들에게는 남아 있어서, 그들은 예배에 충실하므로 그들에게 임할 화를 피하고 복을 가져오는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예배는 아니다."[23]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과의 교제다. 더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므로 해서 성전예배가 이루어졌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중심적 성소가 되었다."[24] 이 성전예배는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있어서 세가지 기능을 충족시켜 주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성전은 여호와가 중심이 되었고 국가 생활에 있어서 법률의 중심지가 되었다.

② 성전은 제사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행하는 정규 예배를 위한 기회를 가지는 곳이다.

③ 성전은 유대인들의 절기마다 국가적으로 종교적인 행사를 위하여 모이는 장소로 사용 되었다.[25]

한편 의식적인 예배에서는 말씀보다도 행위의 요소가 더 컸으며 동물의 희생은 드려졌으나 기도가 없는 예배였다.[26] 또한 율법시대의 예배는 미래에 나타날 진리를 의미하고 있으며 제물을 드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19) 김소영, 예배와 생활, pp. 13~14.
20) 박준서, *op. cit.*, p. 49.
21) F. M. Segler, *op. cit.*, p. 33.
22) *Ibid.*
23) Paul H. Vieth,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교육과 예배, 김소영 역, 서울 : 신문인쇄사, 1978, p. 23.
24) F. M. Segler, *op. cit.*, p. 34.
25) 김소영, 예배의 생활, p. 19.
26) 신학교재 편찬위원회, *op. cit.*, p. 29.

3. 포로이후 시대의 예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자 성전은 파괴 되었고 성전이 파괴되므로 성전에서의 예배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부득불 이들은 성전에서의 희생제물이 불가능하게 되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27] 그러므로 자연 이 시대에 와서는 제물을 드리는 성전예배가 아니라 제물보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된 회당예배가 성행하게 되었다. 성전예배와 회당예배와의 기본적인 차이는 제물이었는데 성전예배에서는 제물이 핵심이었으나 회당예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일로 대치하게 되었다.[28] 회당예배가 있기까지 이스라엘은 장막의 형태로서 출발하여 성전예배가 있었고 여기에 회당예배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29]

원래 회당이라는 말은 "함께 모이는 집(The House of Assemble)"이다.[30] 이 회당에서는 말씀의 낭독과 설교가 예배의 중심적 요소였는데 이것이 신약 예배 형태를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 수 있다.[31]

그렇다고 하여 포로 이후 시대에 유대인들이 회당에서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아니다. 이 회당예배가 있는 반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므로 인하여 성전예배가 있었던 것이다. 많은 예언서들과 시편에서 살펴 보는대로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행위는 다분히 의식주의였고 불순한 마음으로 드렸던 것으로 나타난다. 호세아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여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 : 6)고 외쳤고 미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 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미 6 : 6~8)고 역설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예배의 일반적 개혁을 부르짖기도 했다."[32] 회당에서의 예배 의식은 신 6 : 4~9, 11 : 13~21, 민 15 : 37~41에 기록되어 있는 쉐마를 낭독하고 축복기도, 율법을 낭독, 예언서 낭독, 강해와 권면, 축도 등으로 되어있다. 특히 말라기서는 예배에 대하여 깊이 관련되어 있는데 백성들의 불결한 떡(말 1 : 7) 병든 짐승의 제물(말 1 : 8) 드림을 말라기 선지자는 괴로와하였고 불의한 태도와 하나님의 언약 파하였음을 통탄하였다. 더구나 말라기 3 : 8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가납되어져야 할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 하고서도 의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게 되므로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암흑의 세계를 맞고야 말았다.

27) *Ibid.*, p. 30.
28) 김소영, **예배의 생활**, p. 20.
29) *Ibid.*, p. 21.
30) *Ibid.*
31) 신학교재 편찬위원회, *op. cit.*, p. 30.
32) F. M. Segler, *op. cit.*, p. 37.

B. 신약에서의 예배

신약에서 예배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첫째 라트레이아(Latreia)인데 "섬긴다" "사용 당한다"로 특히 보상을 위하여 일 한다는 뜻이다. (눅 2 : 37, 계 7 : 15) 이는 기도와 간구와 대망 속에서 하나님을 섬김을 뜻한다. 둘째는 리토우르기아(Leitourgia)인데 이 단어의 뜻은 "옛 언약 아래서의 제사장의 직무(눅 1 : 23, 히 9 : 21)" 또는 "그리스도의 직분(히 8 : 6)과 교회의 예배(행 13 : 2)"를 표시하는데 고전 헬라어에서는 정치적 공동체에 봉사를 의미하는 말이고 문학적으로는 백성의 행위를 뜻하고 그리스도인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치며 더욱 현저히 봉사함을 뜻한다. 셋째로 프로스쿠네오(Proskuneo)인데 그 뜻은 "무릎을 꿇고 엎드린다", "누구의 손에 입 맞추다", "복종한다"는 말로서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를 받으시는 이에게 절대적으로 존중하며 복종하는 의미이며 이는 억지가 아니고 자진해서 경배하는 경건한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 2 : 2, 11, 마 4 : 10, 고전 14 : 25)

이러한 말뜻을 지니고 있는 신약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되어 부활하신날 즉 이레중 첫날인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러한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적 고향이며 장차 올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의식인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보답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예배는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고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받는 일과 드리는 일이 실제 예배에 있어서 잘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약에서의 예배는 유대인들의 예배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시절부터 회당예배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회당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므로 새로운 예배 형태를 이루었음이 틀림없다. 구약의 예배가 드림의 예배 였다면 신약의 예배는 영적 교제의 예배였는데 신약의 이 예배는 「언더힐」이 밝힌대로 "모든 정도와 종류에 있어서 영원자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약의 예배가 구약의 예배보다 다소 형식은 달리할지 몰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신약에서의 예배는 경건되고 진실했으나 장엄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회당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보다 개인의 집에서 예배하게 되었으므로 형식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비록 구약 예배에서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요소가 그리스도교의 예배에 있다 할찌라도 구약성경의 예배와 신약성경의 예배와의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은 없다."[33]

1. 예수시대의 예배

예수시대의 예배는 회당에서와 성전에서 동시에 거행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어 기도의 집을 더럽힌 매매하는 자들을 쫓

33) *Ibid.*, p. 40.

아 내시고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사실이다. 벌써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 예배하는 자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막 11 : 15~19).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가?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ἐν πνεύματι καὶ ἀληθεία)으로 드리는 것이 참 예배라고 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 (요 4 : 24)에서 in spirit and in truth란 말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진리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온 마음이 행동화된 경배를 드리는 것과 이 경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히 일치하는 행위인 것이다.[34] 예수님의 이 주장은 구약의 의식적 예배를 폐지하고 새로운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지도와 억제 아래 드리는 참 하나님(true God)에의 예배이다. 그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의 구원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궁극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하신 분이시다."[35] 원래 "회당은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세워졌다. 그러나 후에 유대 사람들의 예배장소로 사용되었다."[36] 성전에서의 예배와 회당에서의 예배는 많은 차이점들을 들어 내주고 있는데 회당예배는 성전예배에 비하여 ① 덜 형식적이요 ② 교훈적이고 교육적이며 ③ 제사장의 기능이 뚜렷하지 못하고 ④ 제사장 보다는 교사가 중심적 인물이 되었으며 ⑤ 평신도의 참여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예수시대의 예배는 신약의 예전적인 성찬식(마 26 : 26~29, 고전 11 : 22~29)과 세례식(마 28 : 19~20)이 제정되었고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구약의 의식적 예배가 실제로 완전히 성취된 것이다.[37] 이로써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어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에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적당치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우리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예배의 본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 주심으로 보여 주셨다.

2. 사도시대의 예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룩한 구속주, 메시야로 믿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성전과 회당에서 행하여지는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 처럼 예배에 참석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이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 회당이나 개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행 2 : 46~47, 5 : 42, 19 : 9, 20 : 8) 사도시대의 예배에 대하여 비교적 자

34) William Hendriksen, 요한복음주석 상권, 문창수 역, 서울 : 아가페출판사, 1974, p. 133.
35) Raymond Abba,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 기독교서회, 1976, p. 19.
36) F. M. Segler, *op. cit.*, p. 41.
37) 김소영, 예배와 생활, p. 22.

세히 설명되어 있는 곳은 고린도후서인데 거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두가지의 예배형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하나는 "비교적 개방적이고 비형식적인 전도 형식의 예배이며, 또 하나는 통상적으로 밤에 드려진 예배이다.[38] 사도시대의 예배 때는 불신자가 참석했다가 개종하는 경우와 결신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오늘날의 부흥 전도집회와 비슷한 것이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동시대의 예배의 방법은 주로 회당예배 형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제물을 사용하지 아니했고 즉석기도와 같이 단순한 예배를 위한 장소가 마련되기도 했다. 사도시대의 예배의 순서로는 "기도, 찬송, 가르침, 예언, 방언과 축도로 끝난 것으로 생각되나 이 때의 기도 찬송 성경봉독과 성경해설은 기독교 예배의 토대가 되기도 했다."[39] 한편 이 사도시대의 예배는 경건되고 진실하기는 했으나 장엄하지는 않았다. 특히 기도의 형식은 감사, 기원, 중보의 기도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암송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찬송에 있어서는 오늘날과 달리 마리아의 찬가(눅 1 : 46), 사가랴의 찬가(눅 1 : 68), 그 외에 디모데전서 3 : 16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계시록 5 : 9~13의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와 계시록 12 : 10~20절, 19 : 1~2, 19 : 6~8은 이 집회에 사용한 찬송으로 간주된다.[40]

파이퍼(Kenneth G. Phifer)가 지적한대로 동시대의 예배에 사용된 자료에서 수 많은 특색을살펴 볼 수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문서들 즉, 바울의 편지, 예수님 생애의 복음서 기사들을 율법과 예언서 보다 상위에 놓았고, 둘째로 시편이 그리스도교의 예배에서 찬양에 사용되었으나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것과 같은 새로운 찬송이 첨가되었으며, 셋째로 침례와 주님의 성찬은 그리스도교의 예배에 특색있게 첨가되었던 것이다.[41] 사도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은 주로 집이었는데 매일 밤 모일때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일때마다 음식을 나누었는데 이를 애찬 즉, 아가페 식사(Agape meal)라고 한다. 이 식사 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모일때마다 거행되었다.[42] 예배시에 성경낭독과 성경해설이 사도시대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사도행전 3장에서의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중에 믿는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는 말씀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다.

38) 신학교재 편찬위원회, *op. cit.*, pp. 35~36.
39) 김소영, 예배와 생활, p. 24.
40) *Ibid.*, p. 25.
41) F. M. Segler, *op. cit.*, p. 43.
42) 김소영, 예배의 생활, p. 28.

Ⅲ. 준 비

교인들에게 은혜와 축복과 만족이 되는 예배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만족한 예배는 목사를 위시한 여러 관계자들의 목적이 있고 헌신적이며 부지런한 계획과 활동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만남을 보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예배 행위에 의해서 생활하도록 계획하셨으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써 그의 요구에 응하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이다.

예배모범 제2장 교회 회집과 예배시 행의(行儀)에 대한 규정을 보면

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 각기 자리에 앉되 단정하고, 엄숙하며, 경건한 모양을 지켜 자기와 목사와 그 참석한 사람과 참석치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묵기도로 복을 빌 것이다.

②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引證)하는 성경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말 것이요, 귓속 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인증(引證)하는 성경외에는 다른 것을 보지 말 것이요, 귓속 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거나, 웃거나, 기타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유아들은 각기 부모가 데리고 있는 것이 좋으니 한 가족이 하나님의 집에 같이 모여 있는 것이 가장 마땅하며, 유년 예배회로 따로 회집할 때는 당회원이 반드시 출석 인도할 것이다.

예배 모범에서 가르쳐 준 정신에 따라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하박국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찌니라"(합 2 : 20)고 한대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나 교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 지, 정, 의(知, 情, 意) 삼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로 예배는 지성적인 요소가 내포되어야 한다. 시편 105편에 보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예배에서 기억해야 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활동하신 것을 믿고기억하고 이해하고 받아 들이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로 예배는 정서적 요소가 내포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계시로 이해 할때 우리의 마음은 그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 들이고 우리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갑자기 감동이 되는 것이다. 셋째로 예배는 의식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순수한 예배는 복종의 결실을 가져온다. 신자들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들의 의지는 당신이 뜻하시는 쪽으로 굽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5편에 "주를 쫓아라"는 말은 결정을 암시하여 주는 것이다.

A. 예배를 위한 일반적인 준비

예배는 신령한 일이므로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교회당 및 위치 선정

교회당은 가능하면 교인들의 분포를 살펴 중심지가 좋으며 건물은 교인의 분에 넘치는 사치스러운 것 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마련함이 좋겠다. 교회당을 지을 때 경쟁하는 목적으로 지어서는 안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만 지어져야 한다.

2. 실내외의 색

심리학자들이 실험한 결과 어떤색은 마음에 안정을 주지만 어떤색은 신경을 자극시켜 불안케 한다. 그러므로 실내의 벽은 적당한 색으로 칠해야 한다. 각 색들마다 뜻이 있다. 흰색은 기쁨과 승리, 순결, 보라색은 참회, 인내, 준비, 빨강색은 불, 열심, 사역, 녹색은 희망, 생명, 흑색은 비극, 비애, 수심, 초록색은 성장, 황색은 힘, 황금색은 환희, 자색은 존엄, 밤색은 장례의 뜻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홍색과 녹색은 피곤한 기분을 북돋우고 청색·둔황색, 회색은 경의의 마음을 일으키므로 색의 선택은 극히 중요하다.

3. 광선

실내의 창문의 부족과 위치에 따라서 음침하고 불쾌감을 주므로 신경이 예민케 되어 예배에 지장을 주는 수가 있다. 서양 교회들의 창문의 유리는 거의 다 색유리(Stained Glass)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교인들의 마음과 신경을 안정케 하기 위함이다. 교회당 실내의 광도는 책을 읽기에 알맞은 정도면 좋다. 강단 뒤의 창문은 설교자의 얼굴을 잘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4. 음향조절

예배당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다르나 음향조절 장치도 중요하다. 확성기(Public Address)장치를 통해 잘 시설하여 교회당 어느 곳에 앉아 있든지 설교자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예배를 위한 특별준비

1. 예배실의 준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강단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소제가 되고 찬송가, 신구약 성경, 마이

크 시설, 음향관계 등등이 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인들의 준비

시편 50 : 23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의 말씀대로 믿음과 행동이 준비되어야 한다. 육적 자세는 그 사람의 영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예배의 태도는 정숙해야 한다. 예배시간 전에 교회당 뜰이나 현관에서 큰 소리로 인사함은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의 준비하는 마음에 혼란을 가져온다. 인사나 문안은 예배 후에 하는 것이 좋으며 긴 이야기는 이야기할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는데 그치는 것이 좋다. 교인들은 사치스러운 옷을 입기보다, 순수함과 정결로 예의 바르게 단장 할 것이며 성경과 찬송을 소지하므로 초신자들에게 본(本) 이 되어야 한다. 교인들은 교회당에 들어 오면서 잠잠할 것이며(합 2 : 20) 묵상기도로 예배준비를 함이 가하며 시간이 허락하면 그날의 본문을 읽으면 좋을 것이다. 예배가 시작된 후에 자기가 평상시 앉는 자리를 찾는다고 앞으로 가는 것은 예배 분위기를 흐려 놓을 것이며 한시간 예배시간을 못참고 들락거림은 태만한 표요 계획성 없고 조심성 없는 일이다. 아이를 데리고 올때 부모는 어린이를 육아실에 맡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옆자리에 앉게하고 엄숙한 분위기에 적응하도록 하여 예배드리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할 것이다. 설교는 상한 심령을 고치려는 겸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들어야 한다. 설교를 들을때 성경 본문을 찾아 살피면서 설교의 중심을 자기 생활에 반영시켜 교훈을 삼으려는 간절한 태도여야 한다.

3. 목사의 준비

킴피스(Thomas A. Kempis)가 "평안한 마음을 가진자 외에는 그 누구도 평안한 말을 할 수가 없다. 즐거운 마음을 가진자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즐거움을 외부로 나타낼 수 없다. 순종의 법을 배우지 않는자는 타인을 명령할 수 없다."[43] 고 한 말대로 사회와 설교를 맡은 목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스러운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예배시에 순서를 맡은 이들을 미리 접촉해서 잊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며 주보를 만든 후에 신 사건이 일어 났는지 알아보고 광고 책임자에게 알려준다. 까운도 미리 입고 있어야 하고 몸단장에도 특별한 주의가 있어야 하며 그 날에 필요한 성경, 찬송, 설교 원고 등을 가져왔는지 살펴야 한다. 목사의 임무와 기능은 목사가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임무를 가지고 있는중 횡적으로는 인간과 인간,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을 관계시켜 주는 것인데 공예배가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44]

43) Wayne E. Oates, *The Christian Pastor*, Philadelphia:The Westminster Press, 1950, p. 69.
44) O. J. Hodge, *The Distinctive Role of the Minister in Psychotherapy, Unpublished Thesi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48.

4. 장로의 준비

장로들은 예배시간 전에 와서 개인적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로 준비할 것이며 목사와 같이 당회실에서 기도해야 한다. 특히 기도나 광고를 맡은 장로들은 기도 내용을 구상하며 광고 내용을 살펴 봐야 한다.

5. 성가대의 준비

만일 성가 연습이 없으면 예배시작 약 5분전에 성가대에 참석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 입당 전에 목사가 기도함이 가하다. 목사와 순서 맡은이 그리고 성가 대원들이 행렬을 지어 입당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 전에 성가대석에 착석한다. 목사가 강단에 나서기 전에 지휘자와 반주자는 자기 위치에 있다가 목사가 강단에 나서면 곧 순서가 진행되어져야 한다.

6. 안내위원

안내위원은 좌석을 잘 정돈하고 출입의 질서를 잘 잡는다. 교인이 오면 앞자리부터 앉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다. 늦게 오는이들은 큰 소리로 소란을 일으켜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기회를 보아서 들어와 앉게 한다. 기도 도중에 들어오게 될 때에는 문 앞에서 기도가 끝날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교우들에게 웃는 얼굴로 영접하고 좌석을 정하여 줌으로 친절을 다해야 한다. 안내원들은 묵묵히 머리를 숙임과 미소로 인사할 것이며 손으로 하되 입으로는 하지 말 것이다. 교인들은 안내원들의 안내 태도를 보고 흐려졌던 마음을 정돈할 수 있으며 정숙한 마음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안내원들의 안내 태도가 예배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줌을 알고 소홀히 생각지 말 것이다.

7. 유아 관리 문제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중 하나는 어린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배시간에 소란케 하는 문제이다. 어떤 목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애들을 구김살 없이 자라게 하기 위하여 방임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혹은 자랄때까지 교회에 출석하지 않게 하는 이도 있다. 유아를 가진 어머니의 예배 참석을 금할 수는 없다. 해결방안으로는 유아실을 만들어 수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 한 사람이 많은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 충분한 직원이 필요하며 방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좋은 교재가 있어야 한다. 다른 방법은 유아를 가진 젊은 어머니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장치가 된 방을 마련하는 것인데 벽은 유리로 되어 설교자

를 볼 수 있으며 설교 소리는 스피커로 들을 수 있게 되어있다. 방안에서 내는 아이들의 소리가 방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아 다른 교인들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다. 두번째 방법은 교회 당내에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다고 예배시간에 애들을 데리고 노는 일은 금지되어야 한다.

Ⅳ. 공예배의 성질

공예배 순서는 헌법에 있는 예배모범에 준해야 한다. 예배모범 6장5항에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좋다. (고후 13 : 14, 히 13 : 20~21, 유 24~25, 엡 3 : 20~21, 살후 3 : 16~18, 민 6 : 24~26) 고대 로마 교회에서는 정한 순서에 의해서 미사를 진행하고 설교와 교훈을 금했으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간단한 설교를 한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성례 전이다. 개신교의 예배는 교파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설교가 중심이고 정점을 이룬다.

공예배를 드릴 때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A. 예배시간을 지키라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다 모인 후에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작 시간 보다 수십분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을 정함은 서로의 약속이니 예배시작 시간은 엄수 되어져야 한다. 문화인은 시간을 지킨다. 예배 드리는 전체 시간도 특별 순서가 있지 않는한 일정한 시간에 마치는 것이 좋겠다. 목사가 충분한 준비만 한다면 정한 시간에 시작하고 정한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이다.

B. 일관성 있게 진행하라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찬송도, 성가대의 찬양도 그날의 설교 내용과 일치한 것을 택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는 설교 본문과 제목을 미리 택하여 어떤 내용으로 설교할 것을 생각하여 그 내용을 성가대 지휘자에게 알려 줌으로 거기에 합당한 찬송이나 성곡을 택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얻은 감화를 해쳐서는 안된다.

C. 교인들의 유익을 도모하라

바울이 고린도 전서 14장에 예배 드리러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부덕한 일을 하지 말 것과

또한 모든 일을 질서있게 할 것을 권장하였다. 교인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사는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진행함에 있어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중 가운데는 불신자도 있으니 지도자는 심혈을 기우려 그들을 잃어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D. 기계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라

공예배는 반드시 동일한 방법으로 시작하라는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니다. 찬송, 성구낭독, 사도신경 묵도 등으로 시작하는 예가 있다. 기계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특성있는 순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예배순서를 매번 바꾸든지 혹은 한 순서를 해를 두고 거듭하는 일은 교인들에게 혼잡과 실증을 주기 쉬우니 목회자는 주의해야 한다.

E. 경건하고 품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임을 목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바울이 아덴에 가서 시가를 돌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Unknown God)"이라는 제단을 보고 그들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대상을 알게 되었다. (행 17 : 6, 23).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분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는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영원토록 주관하실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시요 진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에게만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께 예배 드릴때 품위있게 드려야 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한다. (요 4 · 22~24, 엡 3 : 14) 설교자는 교인을 웃기는 예화를 사용하나 설교를 준비할때 부터 교인을 웃기려는 목적으로 준비하여 사용하는 일은 설교자의 품위를 잃게 하는 행동이요, 예배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일이니 삼가해야 하며 저속한 말의 사용도 삼가해야 한다. 설교자는 예배가 경건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도록 힘써야 한다.

F. 활기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

틀에 박힌 예배형식으로 말미암아 습관적이고 활기가 없는 예배가 되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목사의 과로로 인한 힘 없는 예배 인도가 되기도 한다. 목사가 사회와 설교를 통해 활기있는 예배가 되도록 하면 교인들도 활력을 되찾게 된다.

G. 교인들이 예배순서에 동참하도록 하라

예배순서 하나하나에 교인들이 동참해야 한다.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드릴때, 헌금을 할 때나 어떤 순서든지 교인들이 방관하는 태도로 예배에 참석해서는 안된다. 문맹인들을 위해서 쉬운 찬송을 미리 가르쳐 예배때 같이 부르게 한다든지 성경을 지참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는 지참하도록 권장할 뿐 아니라 옆에 앉은 교인들이 찬송과 성경을 함께 보는 훈련을 시켜둘 필요가 있다.

V. 결 론

예배란 엄격한 의미에서 피조물인 인간과 조물주이신 하나님과의 영적교제이며 예배의식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불가결한 방편이다. 그런데 이 의식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영적예배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개혁교회의 예배요소는 말씀선포, 기도, 성례전(聖禮典), 헌금 등 네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 종교개혁이전에는 주로 "종교 원리적 문제취급"에 급급하였으나 개혁자들은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알았다. 개혁교회가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그 교리 뿐만 아니고 그것이 설교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칼빈(John Calvin)의 "말씀이 없는 곳에 교회가 없다"[45] 는 말이나 다우마(J. Douma)의 "설교없이 구원없다"[46] 는 말은 개혁교회에서 설교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단독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한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 자복 간구 대도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탄원이거나 유익에 대한 요청인 것만은 아니다. 인간의 영혼과 보다 고위의 세력들 사이의 어떠한 교제도 기도라고 말해 잘못 되지 않는다."[47] 그러나 이것은 광의의 해석이요 기독교 예배에서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대화이며 영적교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기도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이다."[48] 성례전은 그해석과 시행하는 횟수가 학자나 교파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를 알고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칼빈(John Calvin)은 설교와 성례전의 올바른 균형을 수립하는데 이바지 했다. 이 균형의 원리가 예배 개혁의 원리로 재평가 되고 예배학자들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49] 마지막은 헌금인데 기독교의 헌금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은혜의 보답과 감사의 표시이다. 헌금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 만큼 예배의 중요한 행위이다.[50] 초대교회의 헌금은 조직적이었고 규칙적이었다. 칼빈(John Calvin)은 "교회의 어떠한 집회도 말씀과 기도, 성만찬의 집행, 헌금을 드리는 일이 없이 열릴 수 없다고[51] 하였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당 건축 양식이나 예배인도자의 의복 혹은 예배의 음악 등등에 달려있

45) John Calvin, *Calvin's Institute*, 김문제 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77, p. 95.
46)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0, pp. 165~166.
47) 한형제,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5 서울 : 기독교문사, 1981, p. 1019.
48) 류형기, **성서사전**, 서울 : 기독교감리회총리원 출판부, 1970, p. 125.
49) Michael J. Taylor, *The Protestant Liturgical Renewal: A Historical Viewpoint*, Westminster, Md. : The Newman Press, 1963, p. 91.
50) F. M. Segler, *op. cit.*, p. 183.
51) John Calvin, *Calvin's Institutes*, Ⅳ, XVII, 44, p. 1422.

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생활의 전체성(The totality of life)이다. 收會者는 예배에 관한 올바른 개념과 자세를 정립해야 한다.

참고도서

김소영, 예배와 생활,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1978.

예배의 생활. 서울 : 신문인쇄사, 1980.

류형기,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5, 서울 : 기독교문사, 1981.

박준서, "구약에 있어서 예배의 의미," 기독교사상 제23권 2 집 1979. 2.

백동섭, 새목회학, 서울 : 성광문화사, 1981.

정성구, 실천신학개론, 서울 : 총신대학 출판부, 1980.

한형제, 기독교대백과사전,´ Vol. 5, 서울 : 기독교문사, 1981.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Ⅱ.

Conner, W. T., *Christian Doctrine.* Nashville: Broadman Press, 1937.

Cross, F. L., ed., *The Oxford Dictionary of the Christian Churc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Davis, J. G., *The Westminster Dictionary of Worshi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6.

Farmer, H. H., *The Servant of the Word,*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2.

Gibbs, Alfred P., *Worship. Kansas City*: Walterick Publishers, nd.

Hodge, O. J., *The Distinctive Role of the Minister in Psychotherapy, Unpublished Thesi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48.

Keil & Delitzsch, *Biblical Commentary on the O. T., Vol. I. The Pentateuch,*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Co., 1951.

Kuiper, R. B., *The Glorious Body of Christ,*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Co., 1967.

Machen, J. Gresham, *Christianity and Liberalism,*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Co., 1974.

Maxwell, William D., *An Outline of Christian Worship.*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5.

Oates, Wayne E., *The Christian Pastor.*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0.

Rayburn, Robert G., *O Come, Let Us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Co., 1980.

Schalm, Bernard, *The Church at Worship,*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2.

Sperry, W. L., "Some Second Thoughts on Worship," *Religious Education,* 25, No. 4 (April, 1930).

Taylor, Michael J. *The Protestant Liturgical Renewal: A Historical Viewpoint.* Westminster, Md: The Newman Press, 1963.

Abba, Raymond, *Principles of Christian Worship.*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 기독교서회, 1976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김문제역, 서울 : 세종문화사, 1977.

Hendriksen, William, 요한복음 주석 상권, 문창수 역, 서울 : 아가페출판사, 1974.

Vieth, Paul H., *Worship in Christian Education,* 기독교 교육과 예배, 김소영 역, 서울 : 신문인쇄사, 1978.

Segler, Franklin M., 목회학 개론, 이정희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77.

高 神 大 學
論 文 集 第 12 輯
1984. pp. 133～167

J. S. Bach의 교회용 칸타타 106번 "Gottes Zeit ist die allerbeste Zeit"에 對한 硏究

金 永 美*

目 次

Ⅰ. 序 言
Ⅱ. Cantata의 成立과 構成
Ⅲ. Bach의 Cantata BWV 106의 分析
Ⅳ. 結 語
참고문헌
부 록
영문초록

Ⅰ. 序 言

Baroque시기의 대표적 작곡가인 Johann Sebastian Bach는 1685년 독일 Eisenach에서 태어나 1750년 Leipzig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087곡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작품을 남기고 있다.[1]

Bach는 당시의 일반적 관습에 따라 다른 작곡가들의 음악을 사보(寫譜)하거나 편곡(編曲)하면서 음악을 연구하고 작곡을 함께 했는데 그는 일생동안 이러한 과정(過程)을 버리지 않고 계속한 것으로 전해진다.[2] 이렇게 하여 Bach는 프랑스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명한 작곡가들의 양식(樣式)에 접근(接近)할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작곡기법(作曲技法)을 배울 수 있었다.

Bach의 외면적(外面的) 일생은 루터교파(教派)에서 평온한 생(生)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데[3] 이러한 생활환경은 그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좋은 여건으로 많은 작품을 만들기에 부족

* 助教授

1) Sadie Stanly, *The New Grove Dictionary,* vol Ⅰ, p. 836.
2) Terry, Charles Sanford, *The Music of Bach,* p. 3.
3) Grout, *A History of Western Music,* p. 382.